발행인·이배용 | 편집인·김효근 | 제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16:17

이화소식





21 Ewha Global Campus Networks

21개 이화 해외 거점 캠퍼스 구축 완료 4
총장님과 함께 한 창덕궁 역사문화체험 6
SCI 논문 질적 평가 종합대학 1위 6
2010 이화-하버드 HCAP 9

제 89호 | 2010.05.28

어린 새싹들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돋아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화 동산에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된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의 기쁨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헌신과 애정으로 보살피고 이끌어주신 학부모님들과 모교 은사님들의 정성과 배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먼저 인내와 노력의 값진 결과로 오늘의 영광을 차지한 여러분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입학하는 이화는 위대한 여성 개척자들과 지도자들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지성의 전당입니다. 이화는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이며, 도전을 향한 꿈과 열정이 넘치는 비전의 장이며, 탁월한 스승과 학자들의 열성적인 지도로 거듭나는 진지한 학문 탐구의 장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이화인 되길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이화는 1886년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출발하여, 124년이 지난 2010년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여성 고등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3주갑을 맞이하는 2006년부터는 '이니셔티브 이화'의 비전 아래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대학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이화의 기반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더욱 높이 도약하는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가 길수록 미래를 비추는 길이도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화는 미래가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화를 방문하여 3000여 명의 이화인들과 진지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 학생들의 뛰어난 영어 실력과 진솔한 질문들은 클린턴 장관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다른 세계 언론들이 방영하여 자랑스러운 이화의 모습을 세계 곳곳에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화의 놀라운 성과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앞날을 열어가는데 큰 힘

총장동정

'이배용 총장의 경복궁 이야기' 촬영



문화재청에서 '명사와 함께하는 고궁해설: 이배용 총장의 경복궁 이야기'를 촬영했다.

이배용 총장은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 손지애 동문(정치외교 85년졸), 본교 재학생들과 함께 3월 30일 경복궁을 찾았다.

고궁에 깃들여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기획된 '명사와 함께하는 고궁해설'은 7월 1일 개국하는 헤리티지채널(www.heritagechannel.tv)을 통해 개국 기념 스페셜 프로그램의 첫 회로 방송될 예정이다.

한 · 중 여성지도자 포럼 참석

이배용 총장은 4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 · 중 여성지도자 포럼'에 참석했다.

사단법인 21세기 한 · 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가 개최한 이번 '한 · 중 여성지도자 포럼'은 '여성교육과 미래의 역할'과 '한 · 중 양국의 여성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중국 측의 고수련 전 전인대 부위원장, 장매영 중국전국정치협상회의 부수석, 한국 측 김한규 21세기 한 · 중교류협회 회장, 김태현 한국여성정책개발원장 등 양국 여성 지도자급 인사가 함께 참석했다.

이 될 것입니다. 이화는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와 세계를 지향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이화인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가 될 새로운 삶의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이화인이 된 여러분의 보람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화에서 마음껏 여러분의 꿈을 심고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초를 다지기 바랍니다. 대학 교육을 통해 경험하게 될 진리의 넓은 지평과 도덕의 고귀한 정신적 자산, 명예의 소중함은 여러분이 앞으로 긴 세월을 살아가는 삶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며, 성실함을 다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적 삶을 이루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긍정심과 성실함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화에서 여러분이 참된 지식의 습득과 인격적 성숙을 위한 기초를 쌓아가면서 이상은 높고, 가슴은 넓은 사려 깊은 이화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여러분은 세계와 소통과 융합을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는 상호 작용 속에 존재하며, 세계 각국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계들이 중시되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글로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신뢰 속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인간끼리의 소통과 화합 뿐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풀어 가야될 평화가 우리 앞에 많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진선미의 이화 정신 속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주 · 전 · 자 정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 · 전 · 자' 란 여성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주체성, 각 학문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어야 할 전문성, 그리고 겸손함과 배려, 포용, 따뜻함이 담긴 당당한 자신감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선미의 이화 정신 속에 사랑과 헌신의 단물을 부어 이웃과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진정성을 다해 나누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머리에는 지혜가, 가슴에는 사랑이, 얼굴에는 미소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이화인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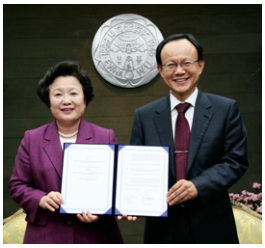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이화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봄과 같은 생명력,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과 벅찬 희열로 이화 교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란한 생명의 힘을 활짝 피워낼 수 있도록, 이화는 넓고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이화의 동산에서 마음껏 탐구하고, 사색하고, 고뇌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화를 선택했고, 이화 또한 여러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화의 희망이며, 이화의 꿈과 약속은 여러분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힘찬 발걸음에 맞추어, 이화는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화에 입학한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2. 26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 배 용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개설



이배용 총장은 유네스코와 '여성의 경쟁력 강화(Women's Empowerment: Bridg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에 대한 유네스코 석좌(UNESCO Chair) 프로그램을 공동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유네스코 석좌는 고등교육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및 유네스코 이상 실현을 위해 199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주제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개발, 진행하게 된다.

한중일 30인회 참석

이배용 총장은 4월 18일~19일, 일본 나라에서 열린 '제5회 한중일 30인회'에 참석했다. 한중일 30인회는 한 · 중 · 일의 정계 · 재계 · 관계 · 문화계를 대표하는 원로 지도자 30인이 모여 3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변하는 세계와 한중일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장은 문화 · 교육 분야 회의에서 한 · 중 · 일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쩡페이옌 중국 전 부총리, 지바오청 인민대 총장, 쉬허이 베이징 자동차그룹 회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 고미야마 히로시 전 도쿄대 총장, 마쓰모도 히로시 교토대 총장 등이 한·중·일을 대표하는 30인으로 참석했다.



세계지도에 이화 캠퍼스를 심다

2010 Ewha Global Festival

21개 이화 해외 거점 캠퍼스 성공리에 구축

세계 주요 도시의 명문대학을 잇는 이화의 해외 거점 21개가 최종 달성됐다.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본교가 2007년 2월 야심차게 발표한 '글로벌 이화 2010'의 핵심 사업이다.

2007년 5월 '이화 인 베이징(Ewha in Beijing)'을 시작으로 뉴욕, 보스턴,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영국(UK), 파리, 독일, 홍콩, 베네룩스 등 빠른 속도로 거점을 확대한 결과 2010년 5월 당초 목표치를 넘어선 총 21개 거점을 조기 완료했다.

다국적 캠퍼스 축제, 2010 Ewha Global Festival



21개 해외거점캠퍼스 구축완료를 기념하는 '2010 이화 글로벌 페스티벌(2010 Ewha Global Festival)'이 5월 19일~20일 개최됐다.

'2010 이화 글로벌 페스티벌'은 미국, 중국, 영국, 호주 등 거점 지역 21개국의 유학생들과 본교 재학생들이 참가하는 다국적 캠퍼스 축제로 각국 유학설명회 및 문화 공연, 대사 초청 특강, 외국인 미니올림픽, Food Fiesta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첫날 열린 개회식에서 이배용 총장은 "2006년 취임과 동시에 추진했던 이화의 독자적인 해외 네트워크가 계획했던 20개를 뛰어넘어 21개가 완성되는 무한감동의 순간을 맞게 됐다"며 "오늘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각국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따뜻한 국제화'의 진면목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각국의 학생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나온 '인터내셔널 부스'. 각 지역의 전통문화와 장기자랑 이외에도 실질적인 유학정보도 얻을 수 있어 행사기간 내내 인파로 붐볐다. 인터내셔널 부스 앞 공연장에서는 각국의 문화공연이 이어져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한편 양일간 진행된 '대사 초청 특강'에는 19일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의 '21세기 관점들: 변화 주체로서의 여성', 20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의 '변화하는 아시아와 한일협력' 특강이 진행됐다.

21개 거점 121개 대학, 국내 최대 규모


Ewha in the UK, 캠브리지대

121개 대학을 아우르는 21개 해외 거점은 국내 대학 최대 규모다. 여기에는 하버드대, 런던대, 뉴욕대(NYU), 컬럼비아대, 웰슬리대,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파리3대학 등 글로벌 명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배용 총장은 "한국 학생들이 한 학교에만 몰리면 함께 다니는 부작용이 있고, 일대일 교환을 하려면 기회가

21개 해외 거점 캠퍼스

거점명	대학명
Ewha in New York	뉴욕대학(NYU), 스토니브룩대학, 럿거스뉴저지주립대학, 바나드대학(컬럼비아대학) 등
Ewha in Beijing	북경대학, 칭화대학, 인민대학, 북경사범대학, 중앙여자학원 등
Ewha in Boston	하버드대학, 웰슬리대학, 보스턴대학, 마운트홀리오크대학, 스미스대학 등
Ewha in Washington DC	조지워싱턴대학, 아메리칸대학, 조지메이슨대학, 메릴랜드대학 등
Ewha in California	UCLA, UC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UC 데이비스, 채프먼대학 등
Ewha in Hawai'i	하오이마노아대학, 하와이힐로대학, 하와이퍼시픽대학 등
Ewha in Germany	괴팅겐대학, 프랑크푸르트괴테대학, 베를린자유대학, 훔볼트대학, 튀빙겐대학 등
Ewha in Shanghai	복단대학, 상해외국어대학, 남경대학, 동제대학, 절강대학 등
Ewha in the UK	캠브리지대학, 런던대학, 런던정경대학, 노팅엄대학, 레스터대학 등
Ewha in Paris	소르본느파리3대학, 소르본느파리1대학, 릴가톨릭대학, 릴경영대학 등
Ewha in Benelux	루뱅가톨릭대학, 브뤼셀자유대학(벨기에), 그로닝겐대학, NHL대학, 라이든대학(네덜란드) 등
Ewha in Hong Kong	홍콩대학, 홍콩중문대학, 링난대학, 홍콩침례대학 등
Ewha in Tokyo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오차노미즈대학, 츠쿠바대학 등
Ewha in Singapore	난양이공대학, 싱가포르경영대학 등
Ewha in Switzerland	제네바대학, 취리히대학, 노스웨스턴스위스이공대학, 베른이공대학 등
Ewha in Canada	토론토대학, 워터루대학, 사이먼프레이저대학, UBC대학, 윈저대학 등
Ewha in Taiwan	국립대만대학, 국립청화대학, 국립중산대학, 국립양명대학, 국립중앙대학 등
Ewha in Spain	말라가대학, 마드리드 카를로스3세대학, 카탈루냐국제대학, 바르셀로나자유대학 등
Ewha in Northern Europe	코펜하겐대학, 코펜하겐경영대학(덴마크), 오슬로대학(노르웨이), 지바스킬라대학(핀란드), 레이캬비크대학(아이슬란드), 리네우스대학(스웨덴) 등
Ewha in Italy	밀라노대학, 토리노대학, 브레라국립미술원, 로마사피엔자대학, 카포스카리대학 등
Ewha in Oceania	호주국립대학, 퀸즈랜드대학,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그리피스대학(호주), 링컨대학(뉴질랜드)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점을 여러 곳에 둔 것"이라며 "다양한 대학에 학생들이 조금씩 분산되어 가는 것이 인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복수학위, 교환학생, 방문학생, 계절학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현재 신입생의 60%를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2009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교환학생 및 외국인학생 비율 국내 1위, 국제화 부문 국내 종합대학 4위로 앞선 역량을 가지게 된 데는 21개 거점 전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HCAP, NYU IMPACT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풍성



이들 거점 캠퍼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도 명성이 높다.

Ewha in Boston의 하버드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2007년 11월 국내 유일의 HCAP(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파트너로 선정된 이래 두 학교의 재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토론을 벌이는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3년 연속 개최해왔다. 하버드대와 공동 계절학기(이화-하버드 썸머 스쿨)를 개설한 곳도 국내에서 이화여대가 유일하다.

현대 문화예술의 중심인 뉴욕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공자들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는 Ewha in New York의 뉴욕대 'IMPACT 프로그램', 전공교수가 직접 학생들을 인솔해 해외 대학 석학들과 공동수업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수인솔해외학습프로그램',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의 정부기관 등을 탐사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EGI(Ewha Global Initiative)' 등도 이화에서만 볼 수 있다.

기존 자비유학보다 저렴한 비용이 든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홍콩대의 경우 양측 학생의 상호교환을 통해 무료로 썸머 스쿨을 들을 수 있고 기타 거점 대학들도 10~60% 감면된 금액으로 수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50개 대학 총장 직접 만나 거점협약 체결



이배용 총장은 취임 당시부터 "'이니셔티브 이화'의 비전은 세계적인 시야와 덕성을 이화인에게 길러주는 '글로벌 이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하버드대 드류 길핀 파우스트 총장, 웰슬리대 킴 버텀리 총장, 케임브리지대 앨리슨 리처드 총장, 북경대 저우 치펑 총장 등 세계 80여 개 대학 총장을 비롯해 수백 명의 국제 교류 담당자를 직접 만나 거점협약을 이끌어냈고, 2008년에는 6개국 14개 대학 총장을 초청해 세계총장포럼을 열기도 했다.

재임기간 동안 이화를 다녀간 여성 리더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최근 3년간 제인 구달 침팬지 전문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미첼 바첼렛 칠레 대통령 등이 이화를 찾았다. 지난해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문해 재학생들과 각본 없는 대화를 나눠 화제가 됐다.

이 총장은 "21개 거점 구축은 이화인들에게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가서 견문을 넓힐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글로벌 이화인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리더십은 거기에 인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님과 함께 한 창덕궁 역사문화체험

우리문화의 숨결 느끼는 역사 나들이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4월 9일 오후, 이배용 총장이 재학생 100여 명과 함께 역사 나들이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문화 유적은 자연과 어우러진 조화를 추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이 총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재학생들의 눈빛이 빛났다.

'총장님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체험' 행사는 이 총장이 재학생들과 우리 문화 유산을 둘러보며, 그 속에 담긴 우리 조상의 지혜를 풀어주는 시간이다. 인정전(仁政殿)을 지날 때는 "이 곳은 사랑을 담은 정치를 하라는 선현의 당부가 담긴 곳"이라며 품계석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설명하는 식이다. '이화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8년 시작된 이래 종묘, 경복궁, 서오릉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매번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호응도 높다. 국제학부 송민지 씨는 "건물마다 얽힌 사연과 돌 하나 나무 하나에 담긴 조상의 지혜를 듣다보니 우리 문화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것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역사학자이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총장은 평소 학생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매 학기 유적 답사를 손수 기획하고 진행해 왔다. 이 총장은 "역사학자로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라 더 즐겁다"며 "재학생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역사문화체험에는 외국인 학생들 20여 명도 참여했다. 몽골 출신 유학생인 경영학과 브럴징 씨는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권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총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와 우수한 역사성에 깊이 공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총장과 학생들은 금천교를 시작으로 인정전(仁政殿)과 대조전(大造殿), 낙선재(樂善齋)를 따라 옥류천(玉流川)까지 창덕궁 곳곳을 방문했다.

이화의 연구논문, 질적 수준에서 높은 평가

SCI 논문 질적 평가에서 국내대학 3위, 종합대학 1위

본교의 SCI 논문의 질적 수준이 세계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됐다.

2월 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이 발표한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중 2008년도에 발표된 SCI 논문 질적 평가 지표인 '상대적 순위보정지수'에서 본교가 1.048을 기록하여 카이스트, 포스텍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상대적 순위보정지수'란 학술지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가 학문 분야별로 편차를 보이는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편차를 보정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한 지표로써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상대적 순위보정지수가 1.00이면 세계 평균 수준임을 의미한다. 국가별 '상대적 순위보정지수'는 미국 1.066, 영국 1.044, 독일 1.015, 일본 0.947, 중국 1.896, 한국 0.924 수준이다.

본교는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정책을 통해 질적평가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에는 (구)학술진흥재단 '2007년도 대학 전임교원들의 SCI급 논문 인용지수(Impact Factor) 평가'에서 2위, 2008년에는 (구)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성사업' SCI급 논문질적평가 3위, 1차 피인용 지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상대적 순위보정지수 상위 연구기관(대학)
('0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순위	연구기관명	상대적 순위보정지수	Impact Factor
1	KAIST	1.062	3.18
2	포항공대	1.054	3.07
3	**이화여대**	**1.048**	**3.50**
4	광주과기원	1.029	2.63
5	연세대	1.014	3.16

2007년도 대학 전임교원 SCI급 논문 인용지수 평가
('09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순위	대학명	인용 지수
1	울산대	2.95
2	**이화여대**	**2.86**
3	포항공대	2.77
4	광주과기원	2.76
5	서울대	2.74

'학술연구조성사업' 대학별 SCI 논문 질적평가 복합지표 순위('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순위	대학명	복합지표	1차 피인용 횟수 평균
1	KAIST	7.10	5.43
2	연세대	5.28	5.54
3	**이화여대**	**5.21**	**5.91**
4	서울대	3.88	4.89
5	포항공대	3.74	4.71



'과학 이화'를 이끄는 이화의 연구진들

생명나노과학, 물리학 분야 연구성과 국제적 주목

이서구 교수팀, 항산화단백질 활동 메커니즘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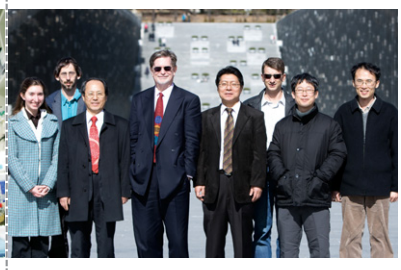


노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활성산소의 인체 내 작동원리를 밝혀낸 생명 · 약학부 이서구 석좌교수와 우현애 교수의 연구논문이 세계적인 과학저널 'Cell(2월 19일자)'에 실렸다.

연구진은 활성산소와 이를 없애는 항산화단백질 Prx와의 상호작동 원리를 규명한 동시에,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 질병과 노화를 일으키는 역기능 외에도 세포 분열과 성장에 꼭 필요한 신호전달물질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향후 노화, 암, 당뇨, 혈관제 질환 등 신호전달 결함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우현애 박사는 본교 학부 및 석 · 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생명 · 약학부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 '사이언스'지에 Prx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등 이 분야 연구에서 두각을 보여왔다. 이서구 교수는 "이화는 98년 과학우수연구센터(SRC)를 설립하는 등 생명과학분야 특성화를 위해 학제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인력과 자원을 집중해왔다"며 "최근의 잇따른 연구성과는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스 셀작(Uros Seljak) 석좌교수 논문, 네이처지 게재



물리학과 유로스 셀작(Uros Seljak) 석좌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약한 중력렌즈와 은하계속도를 이용한 거시크기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의 검증'이 3월 11일, 국제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지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매우 광대한 우주적인 수준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반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을 수정한 최근의 이론들은 은하의 관측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셀작 석좌교수는 WCU 지원사업인 '극한우주기술을 이용한 우주창조원리의 규명 사업(단장 안창림 교수)'의 일환으로 본교 석좌교수로 임용돼, 2013년까지 매년 1학기씩 '현대우주론', '이론물리특론' 등의 대학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셀작 석좌교수는 논문에 참여한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보다 많은 은하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서 다른 수정 이론들의 오차범위를 밝히고,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묵 교수팀, 아미노산 대량생산을 위한 시험생산 성공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연구센터 김관묵 교수팀은 최근 아미노산 대량생산을 위한 시험생산에 성공했다.

정밀화학 · 의약품 업계에서 핵심 기초소재로 쓰이는 아미노산이 세계 처음으로 순수 국내 기술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 교수팀은 지난 2007년 1월엔 L-아미노산을 D-아미노산으로 전환하는 ARCA라는 화합물을 미국화학회지(JACS)에 발표했으며 이후 2년간의 실용화 연구 끝에 지난해 3월 ARCA기술을 응용, 원하는 아미노산을 선택적으로 수송해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또 다시 학계를 놀라게 했다.

본교 최진호 석좌교수는 "기존 아미노산 생산기술은 한 가지 물질에만 적용되는 기술"이라며 "이번 기술은 거의 모든 아미노산에 적용되는, 세계 최초의 범용기술이란 점에서 아미노산 산업 100년사의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말했다.

오구택 교수팀, 동맥경화 촉진 유전자 발견



생명과학전공 오구택 교수팀 연구성과가 잇달아 국제 학술지에 실려 주목받고 있다.

'Circulation'지(2월 22일자)에 실린 연구에서 오 교수팀은 유전자 'CD137'이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사실과 작동경로를 규명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진단의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기능 억제 물질 발굴을 통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오 교수팀은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3월 2일자)'에 실린 연구에서 'mARD1A225' 유전자가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유전자변형쥐를 이용해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는 암 치료기술 개발에 중요한 원천지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개 논문이 연이어 국제적인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오구택 교수는 "이번 논문들은 '이화실험동물유전체 연구센터'라는 본교의 생명과학 인프라와 동료교수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교의 탄탄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들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3751명의 이화인, 세상 앞으로 힘찬 발걸음

2월 22일 대강당에서 '200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총 3,751명(학사 2,641명, 석사 1,009명, 박사 101명)의 이화인들이 이화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배용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이화에서 갈고 닦은 학문적 소양과 인격적 성숙을 바탕으로, 그 동안 품어온 꿈의 날개를 마음껏 사회에 펼치라"며 "이화의 가르침인 자신감과 이화의 사랑, 스크랜튼 선생님이 보여주신 인류 평화의 꿈을 잊지 말고 끝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세상을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공과대학 황지영(컴퓨터정보통신공학 · 06)씨가 최우등 졸업 시상을 시작한 1996년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평점 만점(4.3점)을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황 씨는 휴학이나 재수강 한 번 없이 전 과목 A+의 성적을 거두며, 최우등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어려서부터 여성 공학도를 꿈꿔온 황 씨는 "반드시 완벽한 학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컴퓨터공학 분야가 재미있어 열심히 하다보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우리 삶에서 컴퓨터의 역할이 광범위해지는 만큼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코리안 드림을 이룬 유학생도 있다. 베트남 출신 EGPP 장학생인 응우엔 탄 감(광고홍보학 · 06)씨는 졸업과 함께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탄 감 씨는 베트남에서 우연히 본교가 개발도상국 여성인재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EGPP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어 도전한 결과, 4년 전 낯선 땅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다.

탄 감 씨는 "한국은 내게 기회의 땅으로 짧은 시간 안에 영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배워 대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값진 열매를 맺었다"며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또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0학번 새내기와 함께한 '2010학년도 입학식'

이화에서 펼쳐질 3,380개의 새로운 꿈



본교는 2월 26일 대강당에서 '2010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3,380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3,000여 석이 가득 찬 입학식장은 그 어느 해보다 신입생들의 기대와 설레임, 학부모들의 축하 열기로 활기가 넘쳤다. 남성교수중창단 '백설공주와 오빠들'이 새내기들을 위한 축가를 불렀을 때 신입생들의 환호의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이배용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기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대학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계발하고 타인과 충분히 교류하며, 나와 이웃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함양해 갈 것"을 당부했다.

신입생 선서는 사범대학 이유송(초등교육과)씨와 콩고 출신 신입생인 스크랜튼대학 마펜도 노엘라 무하미리자(국제학부)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본교의 개발도상국 여성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EGPP 장학생으로 선발돼 이화에 첫 발을 내딛은 마펜도 노엘라 씨는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 너무 감사하다. 이화에서 많이 배워서 모국인 콩고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수리물리과학부에 입학한 방이현 씨는 "엄마의 모교이기도 한 이화는 어렸을 때부터 꼭 가고 싶은 대학이었다"면서 "꿈꿔왔던 이화 캠퍼스에서 앞으로 전공 분야인 물리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화-하버드 HCAP 서울 컨퍼런스 2010 개최

'사회적 기업-서비스, 혁신, 그리고 자립'을 주제로 토론



본교 재학생과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성과 경험을 나누는 '이화-하버드 HCAP 서울 컨퍼런스 2010'이 3월 13일 개최됐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HCAP(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은 매년 아시아 주요국가에서 최고의 명문대 6개교를 선정해 하버드와 아시아를 오가며 컨퍼런스를 갖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교는 국내 최초의 HCAP 파트너로 선정된 2008년 부터 3년 연속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본교와의 HCAP 컨퍼런스로 하버드대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린제이 로스(사회학 전공)씨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눈길이 갔다"며 "지형적으로는 작은 나라인데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이 신기해 꼭 와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HCAP 컨퍼런스 본교 재학생 대표인 정승연(국제학부 · 06)씨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미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버드대생 14명과 이화인 20명이 함께하는 이번 서울 컨퍼런스의 주제는 '사회적 기업-서비스, 혁신, 그리고 자립(Social Entrepreneurship-Service, Innovation & Empowerment)'. 문화자선단체인 뷰티풀마인드 총괄이사인 본교 배일환 교수(관현악 전공)와 사회적 기업 활동가인 이철영 아크투자자문 회장의 강연과 함께 강연을 주제로 한 하버드대생들과 본교 재학생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경복궁, 전주 한옥마을 방문, 국악 연주회를 통한 전통문화 체험을 비롯해 박경서 이화학술원 석좌교수의 북한 인권 실태 강연, DMZ 방문, 새터민 대학생과의 만남 등 남북 분단의 현실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청와대, 광화문 광장 방문 등 한국의 전통과 현재, 문화와 미래를 배울 수 있는 일정이 8박 9일간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화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 운영 시작

온라인에서 영어로 듣는 해외 석학 강의

'이화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Ewha Global Online Campus, EGO)'가 올해 1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화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는 온라인에서 영어강의와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학습 시스템으로 2009년 2학기 2개의 강좌를 시범운영한 후 올해 3월 정식 오픈했다.

이화에서 특화된 한국학 및 여성학을 비롯해 교육학 · 자연과학 ·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3학점 정규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개설하고, 예일대, 뉴욕 주립대, 하와이대 등 해외 명문대학의 유명 석학들과 본교 교수진이 강의에 참여한다.

현재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0개의 강의가 개설돼 진행되고 있다. 강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 'Courses & Program' 코너에서 강의계획안과 프리뷰 동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설된 강의는 본교 재학생들은 물론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700여 개의 해외 대학 학생들도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 홈페이지(global.ewha.ac.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Excellence Lecture' 코너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화 노벨 렉쳐' 동영상과 '총장님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체험' 동영상, 아시아 및 한국학 관련 동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 영상들이 제공된다.

온라인 캠퍼스를 통해 본교 재학생들은 해외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직접 수강할 수 있고, 해외 대학 학생들은 이화와 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10회 김옥길 기념강좌, '문화 리더, 梨花'

우리 문화 보존 및 발굴, 계승에 앞장 선 이화의 80년 발자취

제10회 김옥길 기념강좌가 '문화리더, 梨花'를 주제로 5월 10일 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 이배용 총장, 이어령 명예석좌교수,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배기동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등 교내외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김옥길 기념강좌는 여성교육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김옥길 선생님(8대 총장, 1961~1979)의 뜻을 기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박물관과 이화사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김옥길 기념강좌는 본교가 문화 리더로서 한국 민족 문화의 보존과 계승, 육성을 선도해 온 80여 년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기념강좌와 특별전으로 구성됐다.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어령 이화학술원 명예석좌교수의 기조강연 '문화의 창조의식',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유물보존을 위한 초기 박물관 역사' 강연, 나선화 서울시문화재위원의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역사와 재조명' 강연이 이어졌다.

이배용 총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며 "이번 김옥길 기념강좌는 이화여대가 박물관을 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민족 정신을 다음 시대로 넘겨주는 사명을 감당해 온 역사를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까지 계속되는 특별전시는 박물관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이야기'를 비롯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을 소개하는 '이화, 문화를 담다', 2010년 기증품을 전시하는 '나눔과 정성', 옛 여인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조선시대 보자기와 자수' 등 총 4부로 구성된다.

특별전 1부 '박물관 이야기'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지나며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이화의 이야기를 담았다. 박물관은 1930년대 국권이 침탈당하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나라사랑의 마음이 모아져 1935년 교수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수집한 몇 개의 기증품이 그 시작이다. 당시 기증품들이 한국전쟁으로 전부 소실되는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피난 중에도 우리 문화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문화재 수집에 나선 끝에 1952년 부산 임시 교사에 박물관 전시를 재개하기도 했다. 이후 선사시대 돌칼부터 근대의 서예작품에 이르기까지 이화의 소장품은 한국 역사의 전시대를 망라했는데 이러한 소장품들은 우리 문화 연구의 학술적 기반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당시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문화재 수집과 보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문화 리더, 梨花' 전시회에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1점, 보물 8건 11점, 중요민속자료 3건 3점, 최근 등록된 근대 등록문화재 1건 1점이 함께 선보인다. 박물관 개관 이래 국보 및 보물급 유물들이 한 자리에서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 리더 梨花' 전시회


서울 환도 후 1956년에 개최된 소반 특별전


1960년 건립된 박물관 단독건물 전시실 내부

정문 아트월 도벽 제막식

정문에 함박 피어난 백자 배꽃

봄꽃들이 잇따라 꽃망울을 터뜨리는 가운데 이화의 정문 벽에도 배꽃이 함박 피어났다. 4월 5일 정문 아트월 도벽(陶壁) 제막식에서 배꽃 모양의 새 아트월이 공개된 것.

이화의 상징인 배꽃을 백자 기법으로 형상화한 아트월은 작년 4월 대강당 옆에 핀 실제 배꽃을 모티브로 제작되어 1년 만에 정문에 설치됐다.

제막식에 참석한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배꽃처럼 아름답고 싱그러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뜻으로 고종황제가 스크랜튼 선생님에게 하사하신 이름이 이화"라며 "학교의 상징인 배꽃을 형상화한 정문 아트월을 통해 이화의 정신과 전통이 영원히 자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트월을 디자인하고 제작한 강석영 조형예술대학장은 "실제 배꽃을 보고 작업을 시작한지 1년 만에 정문에 백자 배꽃이 자리하게 됐다"며 "도예과 박사과정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한 작업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윤후정 이사장, 이배용 총장, 김순영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교내외 인사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셔틀버스로 이화가 더 가까워집니다

이대역, 경복궁역 2개 노선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작

2010학년도 1학기, 지하철역을 출발해 교내 주요건물을 경유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시작됐다. 이화인의 즐겁고 편한 캠퍼스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셔틀버스로 올봄 이화가 더 가까워졌다.



셔틀버스는 주중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10~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26인승 버스 두 대가 이대역 노선과 경복궁역 노선을 교차 운행하며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돕는다. 셔틀버스는 신공학관, 이화 · 포스코관, 학생문화관 등 주요건물에 정차해 교외 출입은 물론 교내 이동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대전철역노선'은 오전8시 이대역(3번출구 앞)에서 출발, 정문을 통해 공대까지 운행되며, 이용이 많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후문이용자를 위한 '경복궁전철역노선'도 운행된다. 경복궁역(1번출구 종로메디칼약국 앞)에서 출발해 공대와 포스코관, 학생문화관을 경유하는 이 노선은 오전8시부터 오전10시, 오후4시부터 오후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이배용 총장은 "학교가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셔틀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민경(식품공학 · 09)씨는 "이대전철역에서 공학관까지 걷는데 2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대기시간을 합쳐도 7분이면 도착한다"며 "공대생들에게 셔틀버스 운행 소식은 새 학기에 가장 기쁜 소식"이라며 웃었다.

김여은(통계학 · 09)씨는 "학교가 워낙 크고 고지대도 많아서 구두를 신는 날이면 수업 들으러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하니 교내 간 이동에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김경숙 총무처장은 "셔틀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향상뿐 아니라, 택시 등 자동차 사용을 줄임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셔틀버스 양 측면에는 '2010 이화 브랜드 파워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버스광고가 함께해 교내외에 이화의 가치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화'라는 메시지를 담은 첫 번째 광고에 이어 글로벌 이화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최고와 최고의 만남' 광고 캠페인이 두 번째로 게재됐다.



이화인의 한 해를 한 눈에

졸업 ·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화위드유 사진전'

이화인들의 모습을 담은 '이화위드유(Ewha With You) 졸업 · 입학 사진전'이 2월 16일~3월 26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는 'Ewha With You' 캠페인의 일환으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이화인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문 양쪽 벽을 이용해 '이화의 사계', '졸업', '동행', '이화 르네상스', '이니셔티브 이화' 등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한해 이화의 전성기를 함께 걸어온 이화인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 199점이 전시됐다.

사진에는 이화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의 설레임, 공부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이화인들의 열정과 미소가 아름다운 이화의 풍경과 함께 어우러졌다.

한편 입학식 당일 대강당 앞에서는 이화캠퍼스리더가 입학식에 참석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Ewha With You' 캠페인 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이화인의 입학과 졸업을 축하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화여대 공식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

언제나 처음처럼 'The Ewha'



첫 온라인 공식 뉴스레터 '더 이화(The Ewha)'가 4월 12일 발간됐다.

'더 이화'는 이화의 대내외 소통을 목표로 한 첫 정기메일로 교직원, 재학생, 동문 외에도 정부 및 교육 · 입시관련 관계자,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에게 발송된다. 일방향성 학교홍보를 넘어 외부와의 가치공유를 지향하는 '더 이화'는 매번 테마를 정해 기사를 엮어가는 것이 특징.

창간호에서는 첫 번째(1st), 시작(始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처음'이라는 테마를 다양한 인물을 통해 조명했다. 포스코 첫 여성임원 오인경 상무(교육심리학 · 83년 졸), 사회 각계의 이화 출신 '여성1호'들, 2010년 이화 신임교원과 10학번 새내기들이 그 주인공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회학 · 76년 졸)은 '명사가 이화에게' 칼럼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속맛이 나는 김치를 만나기까지는 많은 제작 단계와 발효과정을 필요로 한다"며 "The Ewha가 세월의 속내를 느낄 수 있는 묵은지와 같은 존재로서 단순한 기관 소식지를 넘어 세상과 이화를 잇는 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창간호에는 이외에도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생애(한국 속의 이화), '이대 다니는 남자' 이야기(이화 X-파일), 봄날 이화교정 스케치(포토뉴스), 아임화인땡큐(웹툰)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2010 브랜드 파워 캠페인

최고와 최고의 만남, 세계가 알아보는 이화의 저력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화의 힘을 이야기하는 '최고와 최고의 만남' 2010년 이화 브랜드 파워 캠페인이 시작됐다.

이번 광고는 '글로벌 2010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속의 이화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화에서 만난 하버드대생(에밀리 루드 · 사회학과 08학번)과 이화인(김지원 · 심리학과 08학번)의 이야기를 '최고와 최고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교가 글로벌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들을 함께 보여주며 글로벌 이화의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졸업생과 새내기 이화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아트월 '우리는 이화' 편도 3월 29일까지 정문에 게재됐다. 졸업 · 입학 축하 아트월은 졸업반지를 끼고 서로 맞잡은 손을 형상화하여 새봄을 기다리는 10학번 새내기도, 세상 앞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도 모두 '이화인'임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길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변리사, 기술직 행정고시 준비반 개설

이공계 고시분야에서 더 큰 성과 기대해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3월 30일 변리사 시험과 기술직 행정고시 준비를 위한 전용 고시반을 신규 개설하고 4월 15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공계 학생이 변리사 및 기술직 공무원 등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변리사 시험 · 기술직 행정고시 준비반은 기존 변리사 시험 준비반과 이번 학기 신설된 기술직 행정고시 준비반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35석 규모로 운영되던 변리사 시험 준비반을 확대해 신공학관 1층에 56석 규모의 독서실을 마련하고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변리사 시험 준비반 지도교수인 조월렴 교수(물리학과)와 김민수 교수(컴퓨터공학과)가



공동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지도를 맡게 됐다.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1인 2사물함, 독서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달 출결상황에 따라 공대식당, 기숙사식당 식권이 지급되고 도서구입비 및 모의고사비도 지원된다.

변리사 시험 준비반은 2005년 1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뒀다. 2007년 최연소 합격자를 배출했고, 2008년에는 수석합격자를 포함해 합격자 12명을 배출하며 전국 대학 순위 5위를 차지했다. 변리사 시험 준비반이 개설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1명의 합격생이 배출됐다.

2010년 1학기 현재 변리사 시험 준비반 32명, 기술직 행정고시 준비반 7명으로 총 39명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고시 준비반은 매년 3월, 9월 신규인원을 모집한다. 변리사반은 1차 시험 합격자가 우선 선발되며 여석은 산업재산권법 모의고사 석차 순으로 선발된다. 기술직 행정고시반은 1차 시험 합격경험자 중 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된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이화인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소식 이어져



김지림 씨, 파리 모의유엔회의서 수상



본교 김지림(정치외교학 · 08)씨가 2월 4일~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모의유엔회의(Paris Model United Nations, PMUN)'에서 'Outstanding Delegation' 상을 수상했다.

2009년 2학기부터 2010년 1학기까지 파리3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김지림 씨는 교수로부터 제안을 받고 프랑스 학생 두 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모의유엔회의에 참가했다.

모의유엔회의는 참가자들이 유엔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할 국제 이슈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특정 국가를 대표해 실제 유엔의 의결방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파리 모의유엔회의에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모로코 등 약 10개국에서 250여 명의 지원자들이 참가했으며, 김지림 씨는 인도 대표단으로 참석해 가장 뛰어난 외교정책을 펼친 외교단에게 주어지는 'Outstanding Delegation'을 수상했다.

김지림 씨는 "함께 대표단이 된 친구들과 대회 내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설득하고 교섭에 앞장섰던 순간순간이 생생하다"며 "유엔모의대회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리 씨, 런던패션대학 '올해의 상' 수상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이영리 씨가 지난 1월 28일 런던패션대학(London College of Fashion, LCF)졸업작품전에서 '올해의 상'을 수상했다. 이 씨는 2004년 본교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수료 후 런던패션대학의 MA과정에 진학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빅토리안 시대의 회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영리 씨의 작품은 파이프 모양으로 화려하게 접은 천으로 몸 전체를 장식해 선보였다.

영국 보그(VOGUE)온라인지에서는 이영리 씨의 작품을 두고 "가장 뛰어난 작품을 마지막까지 숨겨놓고 있었다"고 평할 만큼 주목받았으며, 영국 유명 백화점인 해로즈(Harrods)와 패션유통 업체인 브라운즈(Browns)바이어팀의 판매 제안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씨는 현재 국제적 규모의 패션유통 사이트인 ASOS.COM과 함께 디자인 공동작업 계약을 맺고 올해 9월부터 대표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영리 씨는 "이번 수상으로 상상도 못했던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자이너로서 '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디자인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9학년도 제2학기 정년 · 명예퇴직교원

후학 양성에 힘써온 이화의 스승들

2010년 2월 28일자로 정하영, 최영, 박준영, 김홍인, 조운조, 유혜자, Susan Oak, 박준우, 조진숙 교수 등 9명이 정년 · 명예 퇴직했다.

정하영 교수 (국어국문학, 26년 재직)



정하영 교수는 1984년 부임해 '고전소설의 문학적 전개 양상',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 고전문학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심청전에 대한 연구는 이 분야 연구자들의 전범(典範)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고전문학회장, 한국고전연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고전문학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본교 대학원 한국학과장, 국어국문학과장, 한국문화연구원장, 기획처장 등 많은 보직을 거치면서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

최영 교수 (영어영문학, 31년 재직)



최영 교수는 영어영문학과에 재직하면서 영미학 분야를 강의했으며, 전공 분야인 셰익스피어와 영미 및 유럽 드라마 분야 영역에서 다수의 편저, 편역서 및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 영어영문학회,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고전 르네상스 드라마 학회, 현대 영미드라마 학회, 한국 아메리카 학회와 한국 페미니즘 문학 학회 등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영어영문학계 발전에 공헌했다. 교내에서도 인문대학 교학부장, 통역번역대학원장, 학생처장, 언어교육원장 등의 보직을 맡아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

박준영 교수 (정치외교학, 27년 10개월 재직)



박준영 교수는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한국 정치학 발전에 기여했다. 국제정치학과 국제기구 분야에서 많은 논문을 주요 학술지에 발표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정치에 대한 다수의 저서들은 현재까지 국제정치와 국제기구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박준영 교수의 지도아래 국제연합 동아리가 조직되어 국내외 국제학술 대회에서 많은 입상자를 배출하는 등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공헌했다. 또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로서 학문발전과 교류에 기여했다.

김홍인 교수 (작곡, 29년 재직)



김홍인 교수는 이론 전공 교수로 전공실기 및 음악이론 과목들을 가르치며 이론 전공자들을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론 전공을 위한 작곡과의 '졸업논문집' 발간에 기여하는 등 초창기 작곡과의 음악이론 전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음악의 기초이론', '화성1', '화성2', '단순, 전위대위, 모방', '대위, 16세기 양식' 등의 저서를 발간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음악의 조의 변천', '고전 · 낭만주의 음악의 모방기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김홍인 교수는 본교 부임 이래 음악대학 작곡과장 및 대학원 음악학과장, 실용음악협동과정 주임교수 등을 역임하며 학과 발전에 공헌했다.

조운조 교수 (한국음악, 30년 6개월 재직)



조운조 교수는 한국음악과에 재직하면서 연주활동과 후진양성에 기여했다. 본교 부임 전에는 국립국악원 전속연구원, 연주단악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연주가, 음악 행정가로서 한국음악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세계 각국에서 수십 회의 연주공연을 가졌으며, 국내에서는 1981년 세계 최초의 해금독주회를 비롯해 수차례의 독주회와 연주회를 가졌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제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로 지정되기도 한 조 교수는 본교에서 음악대학 교학부장 및 음악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음악과의 기반을 닦는데도 기여했다.

유혜자 교수 (도자예술, 24년 재직)



유혜자 교수는 여성도예가 양성과 전통자기의 현대화 발전에 앞장섰다. 수차례의 개인전과 해외 초대전을 가졌으며, 특히 전통도자기의 현대화 분야에서 독창적인 작품의 발표로 한국전통문양의 현대화와 세계화라는 업적을 이뤘다.

전통도자 및 현대도자, 도예조소 등의 다양한 분야를 교육하며 도자예술 전문분야의 작가 양성에 앞장섰다. 또한 디자인대학원 교학부장 및 도자예술학과장, 도예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교 발전에 공헌했으며 한국공예가회 회장과 한국현대도예가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박준우 교수 (화학 · 나노과학, 28년 6개월 재직)



박준우 교수는 1981년부터 자연과학대학 화학 · 나노과학 전공에 재직하면서 사이클로덱스트린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 특이적 초분자 및 분자 나노-구조체의 조립과 특성 연구와 형광법을 이용한 에너지 및 전자 전달 연구와 초분자 및 생물 분자계의 화학 및 구조적 특성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행해왔다.

또한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우수논문상, 대한화학회의 학술진보상 등 여러 시상을 통해 그 연구성과를 인정받았으며, 대한화학회 편집간사, 총무간사, 영문지 상임편집위원, 화학올림피아드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조진숙 교수 (의류학, 20년 재직)



조진숙 교수는 영국 Leeds 대학에서 의류산업에 필요한 CAD system 개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의류직물학과에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Apparel CAD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했고, 의류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며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진행해 실용화하는 등 연구를 통한 실생활 적용을 시도했다. '직물의 texture가 soil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승무의 이미지를 표현한 직물조형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교수 소식



김성현 교수(경제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김성현 교수가 2월 9일 한국산업조직학회 총회에서 제4회 춘당 논문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신용수단 간 상호작용을 통한 신용할당의 미시경제 분석: 현물신용과 현금신용(Credit rationing through the lens of interaction among credit instruments: Trade credit and cash credit)'으로 이번 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산업조직학회 초대 회장인 춘당 정병휴 교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춘당 논문상은 매년 한국산업조직학회 발간 학회지 '산업조직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성태제 교수(교육학과)



교육학과 성태제 교수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9대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취임 승인을 거쳐 대교협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월 8일부터 2년간이다. 성 교수는 1989년부터 본교 교수로 재직하며 입학처장과 교무처장 등의 보직을 맡아왔다. 또한 한국교육평가학회장,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부위원장,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최경희 교수(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최경희 교수는 1월 28일 한국과학교육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과학교육분야에서 수년간의 연구 업적과 과학교육 발전 공헌도를 토대로 수여하는 상으로 최 교수의 수상은 여성 과학교육자 최초 수상일 뿐만 아니라 역대 최연소 수상이어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조앤 발렌타인 교수(바이오융합과학과)



바이오융합과학과의 조앤 발렌타인(Joan S. Valentine) 교수(UCLA 화학과 교수)가 3월 23일 미국화학회(ACS)가 수여하는 'Alfred Bader Award'를 수상했다. 'Alfred Bader Award'는 1986년부터 매년 한 차례 무기화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생체 내 활성산소종 연구'의 일인자인 발렌타인 교수는 Heme 효소의 생체모방 모델링, 구리-아연 활성산소 제거효소 및 그 효소와 루게릭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 금속-산소화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발렌타인 교수는 WCU 육성사업의 일환인 '바이오 레독스 시스템 융합 연구'에 참여하며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2010학년도 1학기 승진 교원

교수 이창희(번역학), 정순둘(사회복지학), 최병옥(의학), 정현미(법학), 홍기석(경제학), 이상기(화학 · 나노과학), 강상원(생명과학), 이승준(전자공학), 박신화(성악), 박일호(조형예술학), 최유미(영상디자인), 엄정애(유아교육), 이종경(사회생활학), 전지현(국제사무학)

부교수 조수진(의학), 정순섭(의학), 정경아(의학), 조용재(의학), 전루민(의학), 이정경(의학), 안선희(기독교학), 김동하(화학 · 나노과학), 정명수(식품공학), 박은혜(작곡), 김연정(공간디자인), 차미희(사회생활학), 양숙자(간호과학), 박승하(체육과학), 박경옥(보건관리학), 권영주(약학), 강지현(국제학)

조교수 박선희(한국학), 신지선(번역학), 전종설(사회복지학), 이옥주(중어중문학), 최지영(독어독문학), 최윤정(언론홍보영상학), 최정현(환경공학), 박미자(성악), 김종구(조소), 김미경(도자예술), 오인수(교육학), 이숙향(특수교육), 김은성(국어교육), 조윤경(이화인문과학원)

※승진비율: 66.9%

2010학년도 1학기 연구년 개시 교원

1년 연구년 이수영(바이오융합과학), 손지봉(통역학), 이경은(의학), 김승정(의학), 천은미(의학), 이령아(의학), 한수정(의학), 어은경(의학), 송덕수(법학), 노용(교육대학원), 이준서(독어독문학), 김영미(사학), 최은봉(정치외교학), 강민아(행정학), 차미경(문헌정보학), 유의선(언론홍보영상학), 고응일(수학), 박일흥(물리학), 최원자(생명과학), 조경숙(환경공학), 신지화(성악), 홍종진(한국음악), 이혜선(산업디자인), 김영수(교육공학), 이소현(특수교육), 김성원(과학교육), 박인휘(국제학부)

1년(분할)연구년 염혜희(통역학), 이수미(불어불문학), 남경희(철학), 여창열(생명과학), 채기준(컴퓨터공학), 반효경(컴퓨터공학), 신형순(전자공학), 정혜영(초등교육)

반년연구년 최병옥(의학), 석인선(법학), 이종진(중어중문학), 윤난지(미술사학), 이인숙(생명과학), 임석재(건축학), 오병권(시각디자인), 조경원(교육학), 최민식(사회생활학), 홍순태(과학교육)

반년+수업경감 연구년 옥무석(법학), 장화진(서양화)

수업경감연구년 김종준(의류학)

2010학년도 1학기 우수교원

강의우수 총 8명

대학(원)	전공/학과	성명	비고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박영일	전임교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효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권종범	
공과대학	전자공학전공	김정태	
음악대학	한국음악전공	곽은아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이숙향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조경하	시간강사
자연과학대학	통계학전공	문은	

연구실적우수 총 5명

대학(원)	전공/학과	성명
대학원	바이오융합과학과	이원재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이지희
		신상진
인문과학대학	철학전공	남경희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김미경

연구비우수 총 30명

구 분		대 학	전공/학과	성명
최우수	인문사회/예체능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김은미
		인문과학대학	사학전공	조지형
		조형예술대학	공간디자인전공	최경실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최경희
	자연(실험)	대학원	생명 · 약학부	이서구
		대학원	바이오융합과학과	남원우
		대학원	바이오융합과학과	정낙신
		대학원	바이오융합과학과	배윤수
		대학원	바이오융합과학과	이원재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박일흥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조월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오구택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김미경
우수	인문사회/예체능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김미현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최형용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전공	이종진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전공	유의선
		조형예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	김수정
		조형예술대학	의류학과	이인성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강영옥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차미희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신동희
	자연(실험)	대학원	바이오융합과학과	최진호
		대학원	바이오융합과학과	윤주영
		대학원	바이오융합과학과	이공주
		자연과학대학	화학 · 나노과학전공	우정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최원자
		공과대학	환경공학전공	조경숙
		공과대학	환경공학전공	이상돈

2010학년도 제1학기 신임교원

글로벌 여성 인재 양성에 기여할 우수교원 영입

2010.3.1자

대학(원)	전공/학과	교수명	성별	직위	최종출신학교	최종학위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이지은	여	조교수	Macquarie Univ.	Ph.D.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Luccarelli Luigi	남	조교수	Monterey Inst. of Int'l Studies	M.A.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어윤경	여	전임강사	Univ. of Cal./Berkeley	Ph.D.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임우성	남	조교수	서울대	의학석사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이사라	여	조교수	울산대	의학박사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차은숙	여	부교수	가톨릭대	의학박사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이지은	여	조교수	이화여대	의학석사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김선종	남	부교수	고려대	의학박사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영우	남	조교수	연세대	의학석사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TESOL학과	David John Deubelbeiss	남	전임강사	Framingham State College	M.Ed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	김지선	여	조교수	Ochanomizu Univ.	인문과학박사
인문과학대학	미술사학과	장남원	여	조교수	이화여대	문학박사
사회과학대학	소비자학전공	주소현	여	부교수	Virginia Tech	Ph.D.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전공	임소혜	여	전임강사	Stanford Univ.	Ph.D.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전공	안순태	여	부교수	Univ. of North Carolina	Ph.D.
사회과학대학	아동학과	김상원	여	전임강사	Univ. of Georgia	Ph.D.
자연과학대학	통계학전공	유재근	남	조교수	Univ. of Minnesota	Ph.D.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조연정	여	전임강사	이화여대	이학박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김유섭	남	조교수	Univ. of Rochester	Ph.D.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박소영	여	전임강사	이화여대	공학석사
공과대학	전자공학전공	박형곤	남	전임강사	U.C.L.A.	Ph.D.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유다은	여	전임강사	Harvard Univ.	MArch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김희선	여	전임강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임재한	남	조교수	서울대	공학박사
공과대학	환경공학전공	최용상	남	전임강사	서울대	이학박사
공과대학	환경공학전공	위대현	남	전임강사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octor of Science
음악대학	작곡전공	Michael Sidney Timpson	남	부교수	Univ. of Michigan	DMA
음악대학	한국음악전공	김선옥	여	전임강사	이화여대	음악학박사
조형예술대학	서양화전공	문경원	여	전임강사	연세대	영상학박사
조형예술대학	영상디자인전공	최종훈	남	전임강사	New York Univ.	MPS
조형예술대학	의류학과	이승희	여	부교수	Ohio State Univ.	Ph.D.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이정민	여	전임강사	Florida State Univ.	Ph.D.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윤응섭	남	전임강사	Harvard Univ.	M.A.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정종우	남	전임강사	서울대	이학박사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안덕근	남	전임강사	Ohio State Univ.	Ph.D.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김래영	여	전임강사	Michigan State Univ.	Ph.D.
사범대학	언어병리학과	성지은	여	전임강사	Univ. of Pittsburgh	Ph.D.
사범대학	언어병리학과	임동선	여	전임강사	Univ. of Minnesota	Ph.D.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최문섭	남	전임강사	Cornell Univ.	Ph.D.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김유리	여	전임강사	Tufts Univ.	Ph.D.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유성진	남	전임강사	St.U.of New York (Stony-Brook)	Ph.D.
교무처	교양영어실	Melissa Ramey	여	전임강사	Wheaton College	M.A.
교무처	교양영어실	Steven Iams	남	전임강사	The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	M.A.
이화인문과학원		송태현	남	조교수	(불)Univ. de Grenoble III	Diplome de Docteur
이화인문과학원		전혜숙	여	전임강사	이화여대	문학박사



중앙일보, HSBC은행과 MOU

ESU 대한민국 영어말하기대회



3월 8일 중앙일보, 한국 HSBC은행과 '제 1회 ESU 대한민국 영어말하기대회(ESU Korea public Speaking Competition)' 의 성공적 개최 및 교육사업과 관련된 포괄적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중앙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배용 총장, 최연희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장, 매튜 디킨 한국 HSBC은행장,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SU대한민국 영어말하기대회는 비영리 교육기관인 영국의 ESU(The English Union)와 연계해 진행되며, 영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국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 대학생을 위한 CEO특강

미래 리더를 꿈꾸는 이화인들에게



3월 22일 이화·포스코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 주최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이 열렸다. 이배용 총장을 비롯 본교 교수진 및 학부, 대학원생 등 300여 명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포스코·대한민국 그리고 21세기'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정준양 회장은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냐, 변방국으로 추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차세대 리더인 젊은이들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강연에는 포스코 창사 이래 첫 여성 임원이 된 오인경 상무를 비롯해 포스코에 재직 중인 17명의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 함께 특강을 들었다.

교육대학원, 예술교육치료연구소 신설



교육대학원은 3월 25일 예술교육과 예술치료가 통합된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는 예술교육치료연구소(소장 정현주 교수)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예술교육치료연구소는 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과 잠재력 강화, 예술치료를 통한 심리정서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치료 콘텐츠 개발, 현장 연구, 교사 연수, 아웃리치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뉴욕대 석좌교수인 클라이브 로빈스 박사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인간성 고양을 위한 예술' 그리고 '예술교육치료의 미래와 방향' 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범대학, 2010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개원



사범대학이 서대문구와 연계해 2월 27일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를 개원하고 입학식을 가졌다.

서울대, 연세대, 서울교대 등 주요 대학들이 운영해온 영재교육원은 대부분이 수학·과학 교과의 영재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화 영재교육원은 수학·과학 분야와 더불어 인문·사회 분야의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조연순 영재교육센터 소장(사범대학장)은 "문제 중심 학습과 주제 통합적 교육 등 학습자를 고려한 수업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협동심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원 소식

정년퇴직 직원 명단(2010년 2월 28일자)

소속	성명	직위	근속기간	비고
총무과	양한희	사무직원	36년	2009년도 하반기 사립대학교 퇴직직원 표창 수상 (훈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총무과	장부길	기능직	32년 6개월	
총무과	홍순영	기능직	23년	
시설과	신용옥	기능직	32년	


양한희


장부길


홍순영


신용옥

2009학년도 동계 전체 직원모임

2월 19일 학생문화관에서 2009학년도 동계 전체 직원모임을 가졌다. 직원 표창, 신임직원 소개 및 각 처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전기 직원 인사발령(2010년 4월 1일자)

소속	성명	직위	발령사항
교무과	장지현	사무직원	보: 주임
학적과	강학수	사무직원	보: 주임
입학과	선윤정	사무직원	보: 주임
예산과	최희진	사무직원	보: 주임
국제교류과	천미현	사무직원	보: 주임
정보시스템관리과	남경호	사무직원	보: 주임
중앙도서관	조수희	사서	보: 주임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	한현숙	사무직원(주임)	명: 교무과
스크랜튼대학	심세성	사무직원(주임)	명: 학생복지센터
교무과	명욱희	사무직원(주임)	명: 스크랜튼대학
학생복지센터	김혜경	사무직원(주임)	명: 총무과
입학과	김영인	사무직원(주임)	명: 회계과
총무과	박한숙	사무직원(주임)	명: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
회계과	이승연	사무직원(주임)	명: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	지태원	사무직원	명: 구매과·산학협력단
학적과	안윤진	사무직원	명: 학생복지센터
학생복지센터	이윤구	사무직원	명: 입학과
구매과·산학협력단	배성아	사무직원	명: 학적과


경력개발센터



학생복지센터


독어독문학과

이화직장인네트워크 '2010 PEER' 첫모임 개최

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2010 PEER (Powerful Ewha Employment Relationships)'가 1월 20일 첫 모임을 가졌다.

2010 PEER는 경력개발센터가 현재 기업에 근무 중인 이화 직장인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자리로 삼성 · LG 등 국내 주요기업과 한국전력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의 공기업, 한국IBM · 에스티로더 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 18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KBS 황정민 아나운서(영어영문학 93년 졸)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최신애 부사장(한국리서치)의 주제 강연과 더불어 손병옥 푸르덴셜보험 부사장(영어영문학 74년 졸), LG CNS 설금희 상무(경영학 83년 졸) 등 현재 기업에서 여성임원으로 활동 중인 이화 출신 멘토 16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경력관리 노하우'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했다.

수리과학연구소, 과학계산 인턴십 실시

수리과학연구소는 계산수학에 대한 이화인들의 관심 유도와 참여를 위해 2009년 겨울방학 동안 학부생 대상 과학계산 인턴십 과정을 개설하고, 과학계산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설치 · 운영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부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Matlab, Maple, Mathematica, SAS를 비롯해 다소 생소한 Magma, TecPlot, NAG Library 등 과학계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산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학생복지센터, 이화문화기획단 창단

학생처 학생복지센터가 이화인의 인성과 창조적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내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소통의 장을 열고자 2009년 2학기 창설한 이화문화기획단이 2010년 1학기 첫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 1학기 20명의 다양한 전공생들로 구성된 이화문화기획단은 3월 5~6일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을 갖고, 3월 11일 공연기획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석홍 구로문화재단 공연사업팀장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문화기획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이화인들과 문화를 코드로 소통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한 이화문화기획단은 공연 등 문화행사를 즐기고 싶은 이화인들과 티켓할인 혜택을 나누고자 '공感'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독어독문학과, 국제 독일어 캠프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3월 12~14일 경기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제9회 국제 독일어 캠프'를 개최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독일어 캠프는 본교 독어독문학 전공 소속 교수 및 학생들 외에도 독일어에 관심 있는 학부와 대학원생, 지난 10여 년 간 본교 독문과와 독일어 세미나 교류를 이어온 일본 도쿄 추오(中央)대학 독문과 교수와 학생, 독일 교환학생 및 독일인 강사들이 함께 하는 단기 독일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음악(Musik)'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60여 명이 참가, 주제에 대한 개별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독일어로 발표하고, 그룹별로 독일어 촌극을 제작해 함께 공연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발달장애아동센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 진행


발달장애아동센터

발달장애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아동을 비롯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심리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특수 교육 등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해외 선교사들의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 양육 상담, 자녀의 심리, 정서 및 전반적 발달 상황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물관, 서울 역사문화지도 만들기

박물관에서 기획한 '고등학생들과 함께 서울 역사문화지도 만들기'가 지난 2월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2010 대학이 제안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선정됐다. '고등학생들과 함께 서울 역사문화지도 만들기'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2000년 고도(古都) 서울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주제별로 답사하고 '서울 역사문화지도'를 만들 예정이다.

'대학이 제안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서울시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회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이다.


박물관

[출판부 새 책]

춤과 몸 | 김말복 지음

춤은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인간 활동이다. 이 책은 자연과 인간에 관한 동서양의 사상과 예술 이론,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과 사회상들이 춤과 몸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논하면서 그 모든 현상들이 동서양의 자연관, 인간관, 세계관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2만원〉

Mini Messaging: The Art of Smart Texting | Jasper Kim 지음

전자메일이나 메신저,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 쉬운 영어로 간단하게 글 쓰는 방법을 소개한 새로운 형태의 영작문 가이드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 단 몇 줄로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매체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는 40가지 전략들을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7천원〉

몸과 움직임 읽기 | 신상미 · 김재리 지음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용가이자 무용이론가인 루돌프 폰 라반에 의해 개발된 라반 움직임 분석을 토대로, 인간의 몸과 움직임을 관찰,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책이다. 주로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던 연구에서 벗어나 인간의 몸이 만드는 움직임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일러스트와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2만원〉

정신의 도구: 비고츠키 유아 교육 (개정판)

| 엘레나 보드로바 · 데보라 리옹 지음, 박은혜 · 신은수 옮김

러시아의 저명한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의 이론을 유아 교육에 적용한 책으로,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전략을 다양한 실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1998년 처음 번역되어 소개된 이래 유아 교육 이론서로서 꾸준히 사랑받아왔으며, 2007년에 내용을 보완한 원서 2판이 나옴에 따라 이번에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됐다. 〈1만8천원〉

방송학 원론 (개정판) | 유세경 지음

이 책은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방송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개론서이다. 방송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목표로 방송의 특성 및 본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2만원〉

대사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이론 8〉 | 클레르 바세 지음, 박지회 옮김

영화에 '발성'이 도입되면서 대사는 영화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 책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로서의 대사, 영상 안에서의 대사의 위치, 미장센과의 관계, 대사의 법칙들, 대사의 역사적 변천 과정 등 다각도에서 대사를 살펴보고 있다. 〈8천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시리즈

한국의 전통 회화 | 홍선표 지음

평면 미술인 회화는 우리의 사유와 신앙, 생활 등 삶의 전모를 시각적이며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이 책은 한국의 전통 회화의 시기별 흐름과 사조적, 양식적 특징을 약술하면서 그 변천상과 발전상을 개관해본 것으로, 기존의 서구 모형의 내재적 발전론을 벗어나 전통 회화의 새로운 통사적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1만2천원〉

한국의 김치 | 김숙희 지음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웰빙 음식인 김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이 책은 김치의 기원, 원리, 종류, 영양학적 우수성 등등 김치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내고 있다. 〈1만2천원〉

Classical Poetic Songs of Korea | 김대행 지음

'한국의 고전 시가'의 영문판으로, 약 2천여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한국의 고전 시가를 학문적 관점보다는 인간과 삶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다. 〈1만5천원〉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명품 병동, '레이디 병동' 탄생

국내 최초 호텔 수준 여성암 환자 전용 병동 선보여

2009년 3월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을 개원한 이후 여성암 대표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화의료원이 국내 처음으로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명품 병동인 '레이디 병동'을 개설해 암 환자를 위한 진료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지난 3월 4일 개원한 레이디 병동은 호텔 수준의 고급스럽고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명품 병동으로, 고객 중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여성암 환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레이디 병동은 총 93개의 병실로 운영되며 다인실의 TV를 없애고 병동 복도 카펫과 천정 흡음 시설 설치로 입원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폭 줄여 '조용한 병동'을 실현했다. 대신 다목적실을 마련해 환자나 보호자들의 TV 시청이나 인터넷 이용, 음악 치료, 상담, 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병실 입구마다 첨단 LCD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입원 환자 및 담당 간호사 현황은 물론 각종 병원 이용 안내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입원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혁신으로 그동안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병동 안에 배치된 원무 · 보험 담당자에 의해 진행되는 입 · 퇴원 행정 통합 시스템으로 한 자리에서 검사와 예약, 수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며, 병동 안에서 보험 상담 및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사, 수술 및 항암치료로 협진과 외래 진료와 입 · 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암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병동에 전문 코디네이터 2명을 배치해 환자 개개인에게 환자 상태, 처방 내용, 검사 및 치료 계획 등을 1:1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상세히 알려주고,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자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화의료원, 로봇수술 1개월 만에 10례 성공

갑상선암, 전립선암, 자궁암, 자궁 근종 수술 등 잇달아 성공



이화의료원이 1월 30일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자궁 근종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지난해 12월 로봇 수술센터를 개설한 지 1개월 만에 로봇수술 10례를 달성했다. 로봇 수술 관련 국내외 연수 및 시험 가동 기간을 거쳐 로봇수술을 본격화한 지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잇달아 갑상선암, 전립선암, 자궁암 및 자궁 근종 등 총 10례의 수술 기록을 거뒀다.

많은 대형병원들이 고가의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해 로봇수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아직 그 실적과 활용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대형병원보다 뒤늦게 로봇수술에 참여한 이화의료원이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0례를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동현 로봇수술센터장(비뇨기과)은 "지금까지 수술을 받은 환자가 결과도 좋고 만족감도 높다"며, "특히 로봇수술의 적용 가능한 분야가 다양한 만큼 앞으로 더욱 다양한 수술이 로봇수술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뇌졸중 진료 분야 집중 육성, 뇌졸중센터 개설

뇌졸중 집중 치료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

이대목동병원은 3월 9일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뇌졸중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에 신경과 김용재 교수를 임명했다. 최근 노령 인구 증가로 뇌졸중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뇌졸중 진료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한 것.

이번 뇌졸중센터 개설로 이대목동병원은 서울 소재 병원 중 처음으로 신경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재방사선과 의료진과 항응고제 전문 약사, 퇴원 후 교육담당 전문 간호사 등 관련 의료진들이 한 곳에서 뇌졸중 집중 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뇌졸중 환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외래 위주 센터가 아닌 응급실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 혈관 시술팀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는 ESC(Ewha Stroke Code)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치료에 적용한다.

ESC 시스템은 병원을 찾은 응급환자 중 뇌졸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당직 의사가 즉시 병원 전산망의 ESC 항목에 환자 정보를 입력해 신경과 의료진 및 영상의학과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 CT나 MRI 촬영이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이대여성암전문병원, '2010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대상 수상

고객만족 진료 시스템 높게 평가 받아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이 ㈜디지틀조선일보에서 주관하고 조선일보와 한국광고홍보학회에서 후원하는 '2010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암 전문병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여성암 분야에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임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이화의료원이 암 전문병원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것은 1887년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한 이후 국내 유일의 여자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여성 교육, 연구, 진료를 선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여성암 진단 및 치료,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이대여성암전문병원과 여성건진센터, 여성암연구소를 동시에 운영하며 여성암 예방과 치료, 연구에 앞장서 온 점이 주효했다.

아울러 병원을 방문한 당일에 모든 진료, 검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와 3차 진료기관 최초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시술 등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진료 시스템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200여 이화동창 참석, 이화인의 긍지 드러내

2010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가 3월 13일 이화 · 삼성교육문화관 8층 대회의실에서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전 이사장, 이배용 총장과 동창회 고문, 신입동창들과 각과별 동창들을 포함한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약 한 시간 동안 열렸다.

김순영 총동창회장은 개회사에서 "총동창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동창회 100년사'가 현재 자료수집을 마치고 집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대한 작업인 만큼 힘든 여정이지만 동창회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2009년 주요활동을 동창들에게 보고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배용 총장은 "이화만큼 역사가 길고 튼실하게 성장하는 대학이 드물다"며, "앞으로 글로벌 2010 프로젝트의 목표인 해외 20개 대학 거점 캠퍼스를 완성하고,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석학들이 각 분야에 포진해 연구는 물론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와 통일, 글로벌 캠퍼스로 거듭날 파주캠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한 모교소식을 전했다.

정기총회를 통해 2009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및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기총회에 앞서 3,700명의 신입동창들을 환영하는 신입동창환영회가 진행됐다. 남상택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장은 "지혜와 겸손, 그리고 높은 지성을 고루 갖춘 당당한 이화인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입동창들을 격려했다.

신입동창 대표로 나선 의과대학 조아란 동창은 "졸업 후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며, "이화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이화인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많은 선배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참석한 신입동창들에게 기념품이 전달됐으며, 김효진(대학원 체육전공) 외 24명의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김순영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2010년 언론인클럽 정기총회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시상



이화언론인클럽은 4월 28일 입학관홀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회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의 이화언론인으로는 '신문부문'에서는 헤럴드경제 라이프스타일 부장 이영란 동문(신문방송학 79년 졸), '방송부문'에서는 KBS 아나운서 황수경 동문(불어불문학 93년 졸), '잡지부문'에서는 보그 코리아 편집장 이명희 동문(신문방송학 82년 졸)이 각각 선정됐다.

이영란 동문은 지난해 1월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을 특종 보도하는 등의 활동사항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수경 동문의 경우 9시 뉴스 진행은 물론 여러 국제행사 등에서 매끄러운 진행을 보여왔다. 이명희 동문은 14년간 보그 코리아를 맡아 대표적인 국내 패션잡지로 자리잡게한 공로를 높이 샀다.

동문 동정

김태련 동문(심리학 60년 졸)



본교 명예교수인 김태련 동문(심리학 60년 졸)이 회장으로 있는 유아교육 교원 연수기관 '아이코리아'가 지난 2월 '국제 베스트버디스(Best Buddies International)'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세계 47번째, 국내 최초로 '베스트버디스 코리아(Best Buddies Korea)'를 설립했다.

김현자 동문(국문 66년 졸)



본교 명예교수인 김현자 동문(국문 66년 졸)이 지난 3월 17일 제21대 이대동창문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대동창문인회는 문학계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클럽으로 매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문을 선정해 이화문학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영미 동문(성악 00년 졸)



소프라노 김영미 동문(성악 00년 졸)이 지난 3월 6일 미국 미시간 주에서 열린 '제39회 윌리엄 버드 영 아티스트 컴피티션' 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 동문은 수석 졸업 후 미국 신시네티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동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다.

이형자 동문(동양화 68년 졸)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원장인 이형자 동문(동양화 68년 졸)이 '제7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에서 세계선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동문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제3세계 선교지에 대한 실천적 선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성은 동문(식품영양학 91년 졸)

최성은 동문(식품영양학 91년 졸)이 미국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퀸스칼리지에 조교수로 임용됐다. 최 동문은 본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고 VCSB의 박사후 연구과정과 매사추세츠의 박사후 과정을 거쳐 현재 퀸스 칼리지에서 식품학과 리서치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애란 동문(식품영양학 박사 09년 졸)



탈북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동문이 미국무부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전후해 여성 인권, 정의 실현에 공로가 있는 세계 각지의 여성 지도자들을 뽑아 수여하는 '용기있는 국제여성상'을 수상했다. 이 동문은 1997년 탈북해 2009년 본교에서 식품영양학 석사, 박사과정을 받은 탈북여성 최초의 박사로서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이자 경인여대 식품영양학조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주캠퍼스 조성 후원의 밤' 행사 통해 약 50억원 모금



이화 파주캠퍼스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마련된 '파주캠퍼스 조성 후원의 밤'이 2010년 4월 22일(목) 저녁 6시 30분 ECC 이삼봉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기업 및 개인 후원자, 파주 관련 주요 인사, 동창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파주캠퍼스의 미래와 포부를 담은 이배용 총장의 인사 말씀 후에는 이화 출신인 전신애 前 미 노동부 차관보(영문 65년 졸)와 주식회사 나남출판 조상호 대표의 후원 연설이 있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노동부 장관(1991~1999)과 미국 노동부 차관보(2001~2009)를 역임한 전신애 동문은 파주캠퍼스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북미주 동창모임에서 만불 릴레이를 제안해 이끌어 오고 있다. 파주에 위치한 나남출판의 조상호 대표도 파주캠퍼스를 적극 환영하며 이화의 비전에 동참을 호소했다. 만찬 행사 후 이화챔버콰이어의 아름다운 합창과 본교 음대 교수 및 동창회장의 피아노트리오, 성악 공연 등 감동적인 무대가 이어졌다. 파주시에 위치한 (주)LG디스플레이가 상호협력과 이화여대의 발전을 기원하며 30억원을 약정하는 등 이날 대외협력처가 모금한 금액은 약 50억원에 달한다.

체육과학과동창회
파주교육 · 연구단지조성기금 약 1억 8000만원 전달

2010년 2월 24일(수) 체육과학과동창회 임원진이 총장실을 방문해 파주교육 · 연구단지조성기금 1억 8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전달식에는 이영란 체육과학과 동창회장과 고선혜 전 회장,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을 비롯해 본교 김경숙 총무처장 등 체육과학과 교수들이 참석해 사회적으로 스포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체육과학대학의 복원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모금에 개인적으로 5000만원을 기부한 이영란 회장(체육 76년 졸)은 이화 파주캠퍼스에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생겨 이화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파주캠퍼스 조성을 통한 이화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어 즐거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동창들은 파주캠퍼스를 통해 이화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의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10.1.23~2010.4.22)

〈파주교육 · 연구단지기금〉

동창 정경숙(영문 79졸) 100만원, 이화익(영문 80졸) 1000만원, 김혜림(영문 82졸) 100만원, 불어불문학과 4기 100만원, 8기 100만원, 10기 100만원, 12기 100만원, 13기 100만원, 14기 100만원, 15기 100만원, 18기 100만원, 19기 100만원, 22기 100만원, 24기 100만원, 27기 50만원, 아미24회 50만원, 김혜원(불문 68졸) 100만원, 강미영(불문 72졸) 100만원, 배혜화(불문 77졸) 100만원, 독어독문학과 17기 50만원, 18기 150만원, 26기 100만원, 안윤정(독문 69졸) 3000만원, 박지원(독문 91졸) 10만원, 목승숙(독문 91졸) 10만원, 조의행(독문 91졸) 30만원, 최성은(독문 91졸) 10만원, 최영(독문 91졸) 10만원, 탁수정(독문 91졸) 10만원, 이정화(독문 91졸) 10만원, 신동주(독문 91졸) 10만원, 김희진(독문 93졸) 10만원, 강정설(사학 78졸) 200만원, 황유정(정외 85졸) 500만원, 황인엽(정외 91졸) 30만원, 오유경(정외 93졸) 100만원, 홍옥경(문정 68졸) $2000, 성인숙(신방 70졸) 200만원, 최서연(광홍 04졸) 100만원, 강정화(물리 79졸) 50만원, 김연순(화학 59졸) $1000, 한미용(생물 63졸) 100만원, 한은희(생물 80졸) 50만원, 김현정(생물 91졸) 40만원, 한영식(관현 72졸) 300원, 오재복(종음 79졸) 100만원, 함지선(무용 99졸) 100만원, 한미영(동양화 76졸) 1000만원, 황인경(과교 86졸) 100만원, 황정원(과교 91졸) 36만원, 송영숙(법학 85졸) 100만원, 박경임(비서 84졸) 100만원, 어혜정(간호 10졸) 30만원, 방봉세(체육 51졸) 500만원, 김을교(체육 69졸) 100만원, 고준은(체육 76졸) 100만원, 권여성(체육 76졸) 300만원, 김현자(체육 76졸) 300만원, 이기화(체육 76졸) 300만원, 이영란(체육 76졸) 5000만원, 이지영(체육 76졸) 100만원, 이현숙(체육 76졸) 100만원, 임혜옥(체육 76졸) 300만원, 정미영(체육 76졸) 300만원, 임호남(체육 77졸) 300만원, 권용란(체육 78졸) 100만원, 이연종(체육 80졸) 300만원, 한해영(체육 80졸) 100만원, 김설향(체육 81졸) 200만원, 이미나(체육 81졸) 1000만원, 전선혜(체육 83졸) 500만원, 곽미경(체육 87졸) 300만원, 박정민(체육 88졸) 300만원, 김도연(체육 89졸) 10만원, 김성원(체육 89졸) 10만원, 김영주(체육 89졸) 100만원, 김은영(체육 89졸) 50만원, 김재영(체육 89졸) 100만원, 김정련(체육 89졸) 10만원, 서성희(체육 89졸) 10만원, 설수영(체육 89졸) 100만원, 송지선(체육 89졸) 300만원, 심주희(체육 89졸) 10만원, 이영림(체육 89졸) 50만원, 전오연(체육 89졸) 10만원, 허현미(체육 89졸) 500만원, 여지은(체육 90졸) 100만원, 김양례(체육 91졸) 300만원, 박양계(체육 91졸) 100만원, 하지원(체육 91졸) 300만원, 김옥자(체육 92졸) 500만원, 주종미(체육 92졸) 100만원, 정복자(체육 92졸) 300만원, 김애랑(사체 93졸) 100만원, 오세숙(사체 93졸) 100만원, 이희선(사체 93졸) 100만원, 한혜수(사체 93졸) 300만원, 신윤아(사체 94졸) 100만원, 이은경(사체 96졸) 100만원, 최경아(사체 96졸) 100만원, 한시내(사체 96졸) 100만원, 김유련(사체 97졸) 100만원, 박은경(사체 97졸) 100만원, 이세연(사체 97졸) 20만원, 조영자(사체 97졸) 20만원, 변현정(사체 98졸) 20만원, 신규리(사체 98졸) 100만원, 이재희(사체 98졸) 50만원, 이주연(사체 98졸) 20만원, 권보영(사체 00졸) 100만원, 권태이(체육 04졸) 100만원, 이명희(체육 08졸) 40만원, 김남희(체육 09입) 100만원, 허인전(약학 57졸) 100만원, 홍은숙(약학 58졸) 300만원, 김봉희(약학 73졸) 300만원, 유연옥(약학 73졸) 450만원, 최규희(약학 10졸) 48만원, 이가회 500만원, 김정숙(가정 48졸) 100만원, 전진순(가정 58졸) 100만원, 고영신(가정 59졸) 100만원, 김선영(가정 59졸) 100만원, 김순자(가정 60졸) 50만원, 김은중(가정 60졸) 50만원, 심우연(가정 60졸) 50만원, 이선종(가정 60졸) 50만원, 이숙희(가정 60졸) 50만원, 전은수(가정 60졸) 100만원, 진영숙(가정 60졸) 50만원, 임경자(가정 63졸) 200만원, 이향진(소인발 87졸) 100만원, 윤순의(ALPS 26기) 100만원, 이기남(ALPS 31기) 3000만원, 강옥재(평생교육원) 1000만원 **교직원** 정지영(여성학) 300만원, 김보희(동양화) 300만원, 오숙환(동양화) 150만원, 오용길(동양화) 459만원, 우순옥(서양화) 40만원, 최은경(조소) 72만원, 김미경(도예) 120만원, 유혜자(도예) 240만원, 최연희(영교) 500만원, 신동희(과교) 500만원, 김경숙(체육) 1000만원, 김선희(체육) 100만원, 이경옥(체육) 1000만원, 함정혜(체육) 1000만원, 손무인(건강센터) 500만원 **이화가족** 갤러리마노 120만원, 갤러리인 584만원, 갤러리정 624만원, 서화갤러리 180만원, 이정갤러리 240만원, 주식회사 이화익갤러리 1000만원, (주)도움과나눔 30만원, (주)유웨이중앙교육 2602만 8000원, (주)영원무역 2000만원, (주)좋은콘서트 3000만원, (주)진학사 186만원,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118만 5134원,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1000만원, 한일관 2000만원, M.S.Choi $400, 곽승일 50만원, 임미정 50만원, 익명 10억원 **이화아트페어작품구매자** 박영주

〈글로벌인재육성기금〉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발전기금 최연희(영교) 500만원 **자연대학** 김금주 500만원, 정만홍 1000만원

교내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10.1.23~2010.4.22)

음악대학보수기금 지순경(기악 68졸) 100만원, 유순희(기악 69졸) 100만원, 왕현옥(피아노 83졸) 100만원, 김은하(피아노 86졸) 300만원, 김문정(피아노 87졸) 100만원, 김소영(피아노 87졸) 100만원, 동수정(피아노 93졸) 100만원, 신혜승(피아노 94졸) 100만원, 심희정(피아노 94졸) 100만원, 이정은(피아노 94졸) 100만원, 최민경(피아노 96졸) 100만원, 이경아(피아노 97졸) 100만원, 이지영(피아노 98졸) 100만원, 서영미(피아노 99졸) 100만원, 안지연(피아노 02졸) 100만원, 이인현(건반 09졸) 100만원, 김선화(건반 09입) 100만원, 최광혜(관현 72졸) 100만원, 장현정(관현 82졸) 100만원, 유명숙(관현 85졸) 500만원, 박은경(관현 86졸) 100만원, 서영아(관현 93졸) 100만원, 김문정(관현 94졸) 3000만원, 김희재(관현 09졸) 100만원, 전윤정(관현 10졸) 100만원, 김진현(관현 07입) 100만원, 이윤경(관현 07입) 100만원, 송수진(관현 09입) 100만원, 전규민(관현 09입) 100만원, 김현영(관현 10입) 300만원, 유예지(관현 10입) 100만원, 이상화(관현 10입) 100만원, 조아영(관현 10입) 100만원, 남기숙(성악 59졸) 500만원, 하인정(성악 82졸) 100만원, 최혜인(성악 90졸) 100만원, 최현주(성악 05졸) 100만원, 김정아(성악 08졸) 100만원, 이경주(성악 09졸) 100만원, 박나애(성악 10졸) 100만원, 박지나(성악 10졸) 100만원, 김지영(성악 07입) 100만원, 손예지(성악 09입) 100만원, 오혜령(성악 09입) 100만원, 이혜진(성악 09입) 100만원, 주소연(성악 09입) 100만원, 김현지(성악 10입) 100만원, 김현진(성악 10입) 100만원, 김희윤(성악 10입) 100만원, 이지은(성악 10입) 100만원, 임현진(성악 10입) 100만원, 이영자(작곡 54졸) 100만원, 이상인(작곡 78졸) 100만원, 원현미(작곡 88졸) 100만원, 이수정(작곡 90졸) 100만원, 김지현(작곡 95졸) 100만원, 안선현(작곡 95졸) 500만원, 김유진(작곡 98졸) 100만원, 권새미(작곡 03졸) 100만원, 김지현(작곡 00입) 100만원, 양재희(국악 80졸) 300만원, 최혜정(한음 90졸) 100만원, 김희정(한음 94졸) 100만원, 류정연(한음 95졸) 100만원, 정호정(종음 91졸) 100만원, 이설아(종음 00졸) 100만원, 김성은(실용음악 08졸) 100만원, 김동희(공연예술 08입) 100만원, 박은선(음악 89졸) 100

이영회연합회 이니셔티브이화발전기금 1억원 전달



2009년 12월 2일(수)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이영회 송년의 밤'에서 이영회연합회(회장: 지순영)가 파주교육 · 연구단지조성기금 5천만원을 비롯해 경영대, 법대, 사회대의 고시준비반을 위한 글로벌인재육성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영회연합회는 '이니셔티브 이화'의 비전과 파주캠퍼스 조성에 큰 공감의 뜻을 가지고 이번 기금을 모금했다.

기독교학과 이경숙 교수 장학금 5000만원 약정



2010년 2월 25일(목) 대학원장 이경숙 교수(기독교학전공)가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 학창시절 김활란장학금을 받았다는 이 교수는 이화의 영향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며, 이화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늘 후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기독교와 문학' 수업의 영향으로 기독교학과 교수가 됐다. 2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큰 보람을 느꼈고 배운 점이 많다며,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와 세계를 빛내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동창회 5000만원 장학금 기탁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예년과 같이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본교에 보내왔다.

이 장학금은 2010년 1학기에 대학원생 25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됐고, 2학기에는 학부생 25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총동창회가 지난 2000년부터 대외협력처를 통해 본교에 후원한 장학금은 9억5천여 만원에 달한다.

폴 샬레프 교수 강의료 파주교육 · 연구단지조성기금으로 기부



조형대 도예과에서 주최한 Sculpture& Pottery 강의에 초빙된 호프스트라대학의 폴 샬레프 교수가 2010년 3월 30일(화) 대외협력처를 방문해 강의료를 파주교육 · 연구단지조성기금으로 기부했다. 샬레프 교수는 사회학과 교환교수로 와 있는 롱아일랜드대학 김혜숙 교수(영문 73년 졸)의 남편이기도 해 자신은 '이화의 사위'라며 이화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특히 DMZ 근처에 위치하게 될 파주캠퍼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는 이화의 앞날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강의료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아내인 김혜숙 교수도 파주캠퍼스 비전에 동참해 8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장학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10.1.23~2010.4.22)

동창 유중근(영문 67졸) 1050만원, 이혜재(기독 66졸) 100만원, 이혜숙(기독 74졸) 100만원, 최미나(경제 09입) 50만원, 최옥자(신방 65졸) 200만원, 김영주(교육 71졸) 380만원, 고승덕(건교 78졸) 100만원, 박찬옥(약학 56졸) 500만원, 최보원(의학 69졸) 1600만원, 김화숙(의학 71졸) 1300만원, 우경숙(의학 72졸) 2600만원, 김태임(의학 74졸) 600만원, 조종남(의학 75졸) 1000만원, 박경희(의학 85졸) 500만원, 양경희(의학 88졸) 180만원, 고신애(임치원 02졸) 100만원, 조계숙(임치원 03졸) 100만원, 김소양(임치원 03졸) 100만원, 이형란(임치원 04졸) 100만원, 현정옥(간호 67졸) $20,000, 대학원동창회 1650만원, 홍콩지회 동창회 120,000HKD, 미주올랜도지회동창회 $2000, 이화국제재단 $10,00 **교직원** 하영수(명예교수) 200만원, 김동하(화학나노) 100만원, 성태제(교육) 400만원, 최연희(영만원, 채현경(피아노) 1000만원, 계명선(피아노) 100만원, 박상미(관현) 100만원, 배일환(관현) 300만원, 배종선(관현) 100만원, 김상곤(성악) 100만원, 남덕우(성악) 1000만원, 박미자(성악) 100만원, 박신화(성악) 200만원, 정복주(성악) 100만원, 박은혜(작곡) 100만원, 윤승현(작곡) 100만원, 주영자(작곡) 100만원, 홍성희(작곡) 100만원, 곽은아(한음) 100만원, 윤남식 100만원, 오명기 100만원, 이명숙(사생 82졸) 100만원, 한국정형외과의원 100만원, 익명 1000만원

조형예술대학프로젝트기금 곽승일 150만원, 임미정 150만원

국제사무학전공실습실기금 (사)한국비서협회 200만원

의과대학사랑실천기금 신상진(의전원) 200만원

소아과학교실기금 김순화(의학 78졸) 1000만원, 유채섭 외 75만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기금 박혜영(의전원) 200만원

임상치의학대학원발전기금 전혜란(임치원 07졸) 30만원, 이선경(임치원 08졸) 30만원, 이유진(임치원 08입) 5000만원, 이준영 40만원

디지털미디어학발전기금 SK에너지 주식회사 5000만원

발달장애아동센터기금 김선경(특교 89졸) 200만원, 김영태(특교) 100만원

패션디자인연구소기금 보엠 1500만원

유아교육발전기금 정지선 2000만원, 익명 1000만원

교직원 이화나눔장학금 약정자 명단

(이화소식 88호에 지면관계상 실리지 못한 명단을 실어드립니다) 강창모(총무) 12만원, 강학수(학적) 6만원, 강혜선(교무) 6만원, 경규명(시설) 6만원, 계은영(정보시스템관리) 6만원, 고경희(양성평등센터) 12만원, 고유선(중도) 6만원, 권기하(시설) 12만원, 권성한(시설) 12만원, 김나영(정보시스템관리) 6만원, 김남숙(중도) 6만원, 김민정(입학) 6만원, 김봉기(시설) 12만원, 김석향(북한학협동과정) 60만원, 김선미(중도) 12만원, 김세주(중도) 6만원, 김수정(교수학습개발원) 12만원, 김수진(학적) 6만원, 김아영(심리) 24만원, 김영상(학적) 6만원, 김영숙(건강센터) 12만원, 김영인(입학) 6만원, 김영재(중도) 12만원, 김영철(사범대) 12만원, 김윤호(총무) 12만원, 김은경(건강센터) 6만원, 김정숙(의전원) 24만원, 김주영(건강센터) 42만원, 김지수(정보시스템관리) 6만원, 김평운(관재) 6만원, 김행관(시설) 12만원, 김효정(홍보) 6만원, 나광식(총무) 12만원, 나은진(국교) 24만원, 남경호(정보시스템관리) 6만원, 남경희(학생복지) 15만원, 남기주(총무) 12만원, 남정현(교수학습개발원) 12만원, 남진석(시설) 12만원, 도덕인(시설) 12만원, 류승윤(중도) 12만원, 류희정(연구) 6만원, 명옥희(교무) 6만원, 문선하(언어교육원) 12만원, 박기성(총무) 6만원, 박동숙(언홍영) 12만원, 박상준(시설) 12만원, 박서연(연구) 12만원, 박소연(구매) 12만원, 박수경(학생복지) 12만원, 박순민(시설) 12만원, 박순진(중도) 12만원, 박연옥(구매) 6만원, 박은경(중도) 6만원, 박응진(시설) 12만원, 박일영(총무) 36만원, 박정옥(관재) 6만원, 박종호(시설) 12만원, 박준석(정보시스템관리) 6만원, 박지영(대협) 6만원, 박지인(학적) 6만원, 박지현(학적) 6만원, 박충일(시설) 12만원, 박태수(교수학습개발원) 6만원, 박호경(총무) 12만원, 방주영(기숙사) 6만원, 방진철(총무) 12만원, 배은영(사범대) 6만원, 서정원(경영학) 48만원, 서지인(교무) 6만원, 석진형(중도) 6만원, 선윤정(입학) 6만원, 송규동(사회봉사센터) 6만원, 송미란(기숙사) 6만원, 송병창(시설) 6만원, 송조웅(중도) 12만원, 송희철(시설) 12만원, 송희홍(시설) 6만원, 신정식(총무) 12만원, 신현식(총무) 12만원, 신효숙(연구) 12만원, 심세성(스크랜튼대) 12만원, 심우정(시설) 6만원, 안등용(교수학습개발원) 6만원, 안윤진(학적) 6만원, 양은희(약대) 6만원, 양한희(총무) 60만원, 오봉규(시설) 12만원, 오승규(시설) 12만원, 왕성택(교수학습개발원) 12만원, 왕종기(교수학습개발원) 12만원, 유동원(의전원) 6만원, 유선자(공대) 6만원, 유은미(중도) 6만원, 유일선(입학) 6만원, 유제욱(인문대) 122만원, 육근미(법전원) 60만원, 윤재숙(국제대학원) 12만원, 윤정은(중도) 6만원, 이건복(시설) 12만원, 이경옥(학생복지) 12만원, 이경재(중도) 12만원, 이나니(중도) 12만원, 이덕규(기숙사) 6만원, 이명숙(중도) 12만원, 이미경(약대) 12만원, 이복희(관재) 6만원, 이선연(예산) 6만원, 이선용(홍보) 6만원, 이소라(입학) 6만원, 이윤구(학생복지) 12만원, 이은선(교무) 12만원, 이인영(중도) 6만원, 이정훈(중문) 12만원, 이종원(건과대) 6만원, 이준성(건축) 12만원, 이지애(철학) 60만원, 이지은(교무) 6만원, 이지형(국제) 42만원, 이진(경제) 12만원, 이한나(교목실) 12만원, 이해숙(통번원) 12만원, 이현주(중도) 12만원, 이형숙(영문) 12만원, 이희진(교대원) 12만원, 임경종(총무) 12만원, 임성은(연구) 12만원, 임형찬(정보시스템관리) 6만원, 장강덕(시설) 6만원, 장미숙(관재) 6만원, 장부길(총무) 6만원, 장향석(총무) 6만원, 전길자(화학) 75만원, 정경희(관재) 6만원, 정광준(교수학습개발원) 6만원, 정연화(사회대) 12만원, 정영진(언어교육원) 12만원, 정오훈(교무) 6만원, 정지영(여성학) 12만원, 정찬근(시설) 6만원, 정희정(기획) 12만원, 조성기(시설) 6만원, 조성숙(중도) 12만원, 조수희(중도) 12만원, 조용식(시설) 6만원, 조혜순(학생복지) 12만원, 주미향(사범대) 12만원, 지태원(인문대) 6만원, 최경영(총무) 12만원, 최광진(시설) 12만원, 최미경(번역학) 24만원, 최연숙(사복원) 36만원, 최장보(총무) 36만원, 최혜련(회계) 6만원, 추정아(입학) 6만원, 표은자(기숙사) 6만원, 하지연(기숙사) 6만원, 한미라(기획) 12만원, 한인대(교수학습개발원) 6만원, 한정혜(정보시스템개발) 6만원, 현영애(중도) 12만원, 홍경복(중도) 6만원, 홍나영(의류) 30만원, 홍생표(시설) 6만원, 홍순학(시설) 12만원, 홍승렬(TESOL) 12만원, 황상욱(시설) 12만원, 황수엽(약대) 12만원, 익명 6만원





이화의 봄꽃 수채화

글 이남숙 교수(생명과학전공)

이화의 봄은 캠퍼스 곳곳에서 수채화를 그려낸다.

노란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봄을 알리는가 하면 이어서 진달래와 개나리, 목련과 벚꽃 무리가 어우러져 핀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목련은 과거 본관 앞 숲에 한 그루가 있다가 어딘가로 이사를 했고, 현재는 학관 옆 동산에 백목련과 다정히 밑동을 붙인 목련이 있다. 이에 반하여, 백목련은 유난히 많아 잔인한 4월을 하얗게 물들이곤 한다. 대강당 옆의 커다란 자목련 또한 화려한 자태가 일품이다.

꽃부터 피우는 진달래가 본관 뒤 숲을 장식한 뒤, 연이어서 핀다고 '연달래'로도 불리던 철쭉이 총장 공관 앞 오른쪽 숲에서 순박한 분홍 꽃을 피운다. 새로 생긴 ECC 정원에 심어진 나즈막한 홍매들 무리가 본관 앞을 붉게 장식하며 오가는 학생들 사이에 서 있다. 무리지어 심어져 있는 화려한 산철쭉 또한 이화 동산을 붉게 수놓는 꽃나무다.

벚나무, 올벚나무, 개벚나무 등 여러 종류의 벚꽃들이 곳곳을 물들이며, 특히 사범대 앞의 왕벚나무는 이사를 하면서까지 오랜 동안 사범대인의 봄을 화사하게 만들고 있다. 종과A동 앞과 포스코관에서 사범대로 내려가는 오솔길 가에는 벚나무의 사촌인 서울귀룽나무 꽃이 연녹색 잎과 함께 하얗게 흐드러져 핀다.

이러한 아름다운 꽃들이 알게 모르게 이화인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리라고 생각한다.

